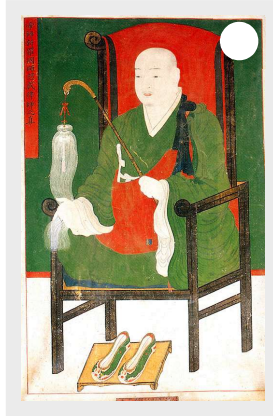


자장[慈藏]

불국토(佛國土) 신라(新羅)를 꿈꾼 율사(律師)

590년(진평왕 12) ~ 658년(무열왕 5)



자장율사진영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자장(慈藏, 590년경~658년경)은 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신라 승려로, 불교가 신라 국교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특히 계율(戒律)을 중시하고 강조하였는데,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려들의 규범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면서 불교 교단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 황룡사(皇龍寺) 9층 목탑 건립을 주도하면서 신라가 불국토(佛國土)라는 관념을 널리 퍼뜨려, 불교를 호국 이념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2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영험함에 의해 태어나 불법에 귀의하다

자장(慈藏)은 590년(진평왕 12)경 김무림(金茂林)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무림은 신라 17등 관등 중 3등에 해당하는 소판(蘇判)의 지위에 올라 국정 운영에 참여하던 진골귀족이었다.

관련사료 하지만 뒤를 이을 자식이 없어 고민하다가, 불교를 믿으면서 천부관음(天部觀音)에게 자식 낳기를 빌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별이 떨어져 품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 후, 임신하여 그를 낳았다. 마침 그가 태어난 날이 석가모니의 탄신일과 같아 이름을 선종랑(善宗郎)으로 지었는데, 어려서부터 비범함을 보였다고 한다.

자장의 부모는 관세음보살에게 자식 낳기를 빌면서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부처의 가르침을 이어갈 재목으로 키우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그는 일찍부터 불교에 귀의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곧 처자식과 헤어지고, 자신이 소유한 땅에 원녕사(元寧寺)라는 절을 세우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수행 생활을 하였다. 시체가 썩어서 백골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수행법인 고골관(枯骨觀)이나, 돌레에 가서 율타리를 둘러 조금만 움직여도 가시에 찔리게 하여 나태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극한에 가까운 수행을 행하였다.

이때 신라 조정에 재상의 자리가 비었는데, 왕이 그를 기용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는 수행을 선택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왕이 노하여 응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위협을 하였지만, “차라리